



2027년 코인 과세 핵심 정리

업비트부터 바이낸스 Perpetual Futures·DeFi까지, 개인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Author: Ricky Sohn

Email: bluelakehq@gmail.com

Relevant Links: www.lightwoodcap.com, www.bluelake.kr

Summary | 핵심 요약

- 2027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순이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 만원을 차감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거래소가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가 다음 해 5 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화 출금 여부가 아니라 **자산의 소유권이 바뀌었는가**입니다. BTC 를 ETH 로 교환하거나 USDT 로 매도하는 거래도 기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으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단순 이전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바이낸스 Perpetual Futures, 펀딩비, 유동성 공급, Liquid Staking, Restaking 등은 아직 개인투자자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이 부족합니다. 특히 무기한 선물미 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현물 가상자산 손익과 통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 업비트·빗썸만 이용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징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연간 손익을 직접 계산하여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시점마다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과는 다릅니다.

2. 2027년 이전에 발생한 손실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년까지 매도하여 확정된 손실은 2027년 이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말까지 계속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도 과세되나요?

그렇습니다. BTC를 ETH로 교환하는 경우 BTC를 처분하고 ETH를 새로 취득한 거래로 봅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가상자산의 양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USDT도 과세 대상인가요?

USDT 역시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 시 원화 기준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달러 기준 가격이 1달러 부근에서 유지되더라도 원·달러 환율 변화에 따라 원화 기준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내기만 해도 과세되나요?

본인 명의의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지갑으로 단순 이전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바이낸스에서 매매하거나 개인지갑에서 스왑을 실행하면 해당 시점부터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7. 해외 거래소의 현물 손실도 국내 거래소 이익과 합산되나요?

현물 가상자산 매매라면 거래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같은 연도의 손익을 합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이나 옵션이 별도 파생상품 소득으로 분류되면 현물 손익과 통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바이낸스 Perpetual Futures는 11%인가요, 22%인가요?

현재 가장 중요한 미확정 쟁점입니다. 일반적인 해외파생상품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바이낸스의 BTCUSDT Perpetual과 같은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이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 해외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개 행정해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분류: 지방소득세 포함 11% 적용 가능성
-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으로 분류: 지방소득세 포함 22% 적용 가능성
- 무기한선물과 펀딩비에 대한 별도의 행정해석 제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물과 Perpetual Futures를 헤지 목적으로 함께 거래하더라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면 손익을 상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현손익, 거래수수료, 펀딩비, 강제청산 내역, 정산받은 USDT 수량과 당시 환율을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9. DeFi도 과세되나요?

DEX 스왑은 가상자산 간 교환이므로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동성 공급, Liquid Staking, Restaking, Vault 예치 등은 단순 예치인지 새로운 토큰으로의 교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내 거래소만 이용한다면 연간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 개인지갑, DeFi, Perpetual Futures를 함께 이용한다면 거래소별 손익, 지갑 간 이동, 스왑, 펀딩비, 수수료를 하나의 통합 원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Case Study | 실제 숫자로 보는 과세 구조

Case 1.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만 거래한 경우

A 투자자는 비트코인 매매로 2,000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더리움에서는 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 비트코인 이익: +2,000만원
- 이더리움 손실: -500만원
- 연간 순이익: 1,5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1,250만원

예상 세액은 1,250만원의 22%인 약 275만원입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현물 가상자산 손익은 거래소와 종목이 달라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Case 2.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려는 경우

B 투자자는 2027년에 5,000만원의 손실을 확정했고, 2028년에는 5,000만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경제적인 누적손익은 0원이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2027년 손실: -5,000만원
- 2028년 이익: +5,000만원
- 2028년 과세표준: 5,000만원 - 250만원
- 예상 세액: 4,750만원 × 22%

따라서 2028년 예상 세액은 약 1,045만원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투자자가 가장 불리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Case 3. BTC를 ETH로 교환한 경우

C 투자자는 취득가액 5,000만원의 BTC를 시가 7,000만원일 때 ETH로 교환했습니다.

- BTC 취득가액: 5,000만원
- 교환 당시 BTC 시가: 7,000만원
- BTC 양도차익: 2,000만원
- 기본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750만원



- 예상 세액: 1,750만원 × 22%

예상 세액은 약 385만원입니다.

ETH를 원화로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더라도 BTC를 ETH로 교환한 시점에 BTC 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받은 ETH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원화가액인 7,000만원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Case 4. 현물 이익과 Perpetual Futures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D 투자자는 현물 비트코인에서 3,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바이낸스 Perpetual Futures에서는 3,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 현물 이익: +3,000만원
- Perpetual Futures 손실: -3,000만원
- 경제적 순손익: 0원

그러나 Perpetual Futures가 해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현물과 통산되지 않는다면, 현물 이익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물 과세표준: 3,000만원 - 250만원
- 현물 예상 세액: 2,750만원 × 22%
- 예상 세액: 약 605만원

경제적으로는 손익이 없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Case 5. Perpetual Futures 수익을 USDT로 정산받은 경우

E 투자자는 바이낸스 Perpetual Futures에서 10,000 USDT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정산 당시 1 USDT의 원화가액은 1,400원이었고, 이후 1,450원에 USDT를 처분했습니다.

- Perpetual Futures 정산수익: 10,000 USDT
- 정산 당시 원화가액: 1,400만원
- 이후 USDT 처분가액: 1,450만원
- 정산 후 USDT 추가 차익: 50만원

이 거래는 장부상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Perpetual Futures에서 발생한 1,400만원의 정산손익이며, 둘째는 정산받은 USDT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50만원의 추가 가상자산 차익입니다.



시나리오 1. Perpetual Futures가 해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국내외 과세대상 파생상품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11%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손익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파생상품 과세표준: 1,400만원 - 250만원 = 1,150만원
- 예상 세액: 1,150만원 × 11% = **126만5,000원**

USDT 추가 차익 50만원은 가상자산소득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다른 가상자산 이익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총 예상 세액은 **약 126만5,000원**입니다.

시나리오 2. Perpetual Futures 수익까지 가상자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Perpetual Futures 정산수익 1,400만원과 USDT 추가 차익 50만원을 같은 가상자산소득으로 합산한다고 가정합니다.

- 연간 가상자산소득: 1,400만원 + 50만원 = 1,450만원
- 기본공제 적용 후: 1,450만원 - 250만원 = 1,200만원
- 예상 세액: 1,200만원 × 22% = **264만원**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총 예상 세액은 **약 264만원**입니다.

핵심 해석

같은 거래라도 Perpetual Futures가 해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면 예상 세액은 **약 126만5,000원**, 가상자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약 264만원**으로 달라집니다.

현재 공개된 행정해석만으로 바이낸스 Perpetual Futures의 분류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사례에서는 하나의 세액을 단정하기보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 세율보다 거래기록이 먼저입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개인지갑, DeFi가 하나의 연간 손익 계산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바이낸스 Perpetual Futures와 DeFi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세율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내역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여러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2027년이 시작되기 전에 취득가액, 지갑 이동, 스왑, 수수료, 펀딩비를 하나의 원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설명

가상자산소득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2027년부터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취득가액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과세대상 소득은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동평균법

동일한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매수했을 때 기존 보유분과 신규 취득분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의 취득가액 계산에 적용됩니다.

선입선출법(FIFO)

먼저 취득한 가상자산이 먼저 처분된 것으로 보는 방식. 개인지갑이나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등 이동평균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Perpetual Futures(무기한 선물)

만기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며, 국내 세법상 해외파생상품 또는 가상자산소득 중 어느 체계를 적용할지는 추가적인 행정해석이 필요합니다.

펀딩비(Funding Fee)

무기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롱과 숏 포지션 보유자가 주기적으로 주고받는 금액. 개인투자자의 세무상 수익·비용 처리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DeFi(Decentralized Finance)

중앙화된 금융기관이나 거래소 없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스왑, 대여,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등을 수행하는 금융 서비스. 거래 구조에 따라 양도, 대여 또는 보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해 OECD가 마련한 보고체계.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가 거주지 국가의 과세당국에 전달되는 기반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한 달이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Compliance Notice

본 기고문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시장 해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고문은 특정 가상자산, 금융투자 상품, 증권, 파생상품 또는 기타 투자대상에 대한 매수, 매도, 보유, 청약, 교환, 대여, 예치, 스테이킹, 레버리지 거래 또는 기타 어떠한 투자 행위도 권유·추천·제안하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기고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자료, 시장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 제3자 리서치 및 저자의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자 및 발행자는 본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계속성, 신뢰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기고문은 독자의 개별적인 투자목적, 재무상태,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투자기간, 세무상황, 법률상황 또는 기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기고문의 어떠한 내용도 독자 개인에게 적합한 투자전략이나 맞춤형 투자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자는 본 기고문에 의존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투자 여부는 반드시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시장 유동성, 규제 변화, 거래소 리스크, 커스터디 리스크, 기술적 결함, 해킹, 프로토콜 변경,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손실할 수 있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과거의 가격 흐름, 수익률, 온체인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또는 백테스트 결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자, Lightwood, Blue Lake Research, Bluelake 및 앰암코인은 본 기고문 또는 본 기고문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해석, 재배포, 인용 또는 이에 기초한 투자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손실, 기회비용, 거래손실, 세금상 불이익, 법률상 불이익, 데이터 오류로 인한 손실 또는 기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기고문에 언급된 가격, 지표, 전망, 시나리오 및 의견은 작성 시점의 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참고용 의견일 뿐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자 및 발행자는 본 기고문 발행 이후 시장 상황 변화, 데이터 변경, 전망 수정 또는 오류 발견과 관련하여 본 기고문을 업데이트하거나 정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기고문에 포함된 제3자 데이터, 차트, 자료 및 외부 링크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저자 및 발행자는 제3자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 또는 해당 자료에 기초한 판단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본 기고문 작성일 현재 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기고문과 관련하여 저자, Blue Lake Research, Bluelake 및 앰암코인이 특정 거래소, 발행사, 운용사, 프로젝트, 투자회사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보수, 수수료, 광고비, 자문료, 투자금, 리워드 또는 기타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본 기고문에 언급된 자산과 관련하여 독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도의 중대한 이해상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자 및 관련 주체는 본 기고문 발행 전후로 본문에서 언급된 자산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거래 방향은 본 기고문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고문의 견해는 저자 개인, Lightwood, Blue Lake Research의 시장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저자가 소속되었거나 과거에 소속되었던 기관, 회사,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앰암코인은 Bluelake가 소유·운영하는 디지털자산 리서치 및 콘텐츠 브랜드입니다. 앰암코인은 시장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고문 내 앰암코인 관련 언급은 브랜드 및 서비스 소개 목적을 포함하며, 특정 자산의 매매 또는 투자행위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수정, 배포, 전송, 인용, 재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기고문을 인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도 원문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도록 편집하거나, 특정 투자행위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